

# 노인 일자리 '코로나 직격탄'...광주·전남 1만개 사라져

면역력 약한 노인 악영향 우려  
전남도·보성군 등 잠정 중단  
타 지자체 검토 등 확산 추세  
월 60만원 소득 줄어 생계 타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최대 1만명에 육박하는 광주·전남 지역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정부가 단기간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든 '공공일자리'이기는 하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임금 규모가 적지 않아 생계에

타격이 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익활동형·사회 서비스형·시장형'으로 구성된 3개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최대 59만 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고령화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요양원 등 다중시설에서 진행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자만 2000명으로 지난해(1346명)보다 48.5%(654명) 늘어난 수치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매월 60만원 가량의 소득도 없어지게 됐다. 보성군은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뿐만 아니라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도 모두 중단했다.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자칫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성군이 파악한 올해 3가지 노인형 일자리사업 참여예정자는 공익활동형 1497명, 사회 서비스형 120명, 시장형 230명, 취업알선형 50명 등 총 1897명에 달한다. 다른 시·군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노인 일자리 중단 사태는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광주 서구도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등 2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당장 올해 참여키로 했던 노인 4454명(공익형 4239명·사회서비스형 205명)이 월 27만~59만 4000원의 수익을 낼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다.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진행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4만 2455명에 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2020년 광주·전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예정자) 현황 <단위:명>

시군	참여인원	시군	참여인원
총합계	2,205	화순	68
광주 서구	205	장흥	62
목포	90	강진	40
여수	198	해남	70
순천	266	영암	40
나주	190	무안	70
광양	170	함평	36
담양	42	영광	56
곡성	98	장성	52
구례	32	완도	150
고흥	40	진도	70
보성	120	신안	40

※ 사회서비스형(10개월, 월 60시간, 59만4000원)



광주 전남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일 광주시 남구 빛고를 노인타운 출입구에 휴관안내문이 붙어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효과적인 음주운전 단속 방안 없나요”

잇단 음주사고에 경찰 고민

경찰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대신할 효과적인 단속 방안이 없어 안전부 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검문식 음주 단속 중단 이후 관련 사고도 잇따르면서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하룻 동안 발생한 3건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로 광산구 쌍암동 성당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로 A(31)씨를 입건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 인근 도로에 세워진 25 t 화물차를 들이받은 B(43)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광산경찰청은 또 6일 새벽 0.140%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광산구 우산동 상무교차로를 지나다 옹벽을 들이받은 C(32)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산경찰 관내에서는 지난 4일에도 0.129%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사고가 지난 달 27일 경찰의 음주 단속 방식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하면서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을 임의적으로 검문하던 방식에서 취약 장소·시간대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선별 단속의 경우 경찰관 개개인이 의심될만한 차량을 직접 골라 단속해야 하는 만큼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반발 가능성도 예상돼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 사실상 음주 단속이 중단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일제 검문식 단속을 대신할 효과적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rob에 일정 거리마다 순찰차를 배치, 경찰의 음주 단속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의 효과를 대체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문 닫은 노인타운...할 일도 갈 곳도 없네 무료급식 중단에 노인들 끼니 걱정

문화 프로그램 대거 중단

복지관도 잇따라 임시 휴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광주·전남 노인의 문화와 여가 생활마저 빼앗았다. 자치단체들이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노인층 참여가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행사들을 대거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노인들이 머무를 공간과 즐길만한 프로그램이 크게 줄었다. 당장, 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빛고를 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이 5일 문을 닫았고 노인복지관만 9곳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20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7곳도 오는 18까지 운영을 잠정 멈춘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했던 노인들 대상 프로그램도 모조리 중단됐다. 매일 열리는 광주극약상설공원을 찾는 노인들도 갈 곳을 잃게 됐고 동구와 북구, 광산구도 노인복지관에서 마련한 노인들 문화 프로그램도 사라졌다. 노인들이 즐겨 찾는 경로당의 경우 남구에서만 236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92개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전부 중단됐다. 확산세가 장기화될 경우 문을 닫는 경로당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광산구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118개의 프로그램을 휴강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정모(여·87)씨는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아 갈 곳이 없다”며 “유일한 낙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낙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저소득 노인 힘겨운 겨울나기

광주·전남 4600여명 영향

광주·전남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저소득 노인들은 당장 끼니 걱정을 하게 됐다. 광주시는 6일 동구 5곳·서구 5곳·남구 5곳·북구 13곳·광산구 4곳 등 총 27곳의 무료급식소 운영을 오는 18일 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145곳의 무료급식소 중 나주·순천·광양·화순·함평·신안·구례·보성·장흥·장성지역 급식소 43곳의 운영이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황이 장기화 되면 떡이나 도시락 등의 대체식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무료급식 이용자는 하루 평균 9245여명(광주 4050여명·전남 5195여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중단된 급식소 숫자를 고려하면 당장, 4600여명(광주 3600여명·전남 1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이 식사를 제 때 챙기기가 어렵게 될 셈이다. 가뜰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을 나아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자칫 사회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한 두터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 사회적 재난에 처하면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이스피싱 대만인 유치장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 '한바탕 소동'

보이스피싱 혐의로 붙잡힌 30대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 등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경찰서가 한바탕 소동. ○·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보이스피싱을 통해 70대 노인으로부터 1750만원의 돈을 훔쳐간 대만인 A(35)씨는 도주중 이날 밤 10시40분께 충남 공주역에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 중, 다음날 오전 8시께 갑자기 기침과 발

열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대만에서 입국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해 선제적 조치로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하는 한편 관련 경찰과 유치장까지 격리 조치했는데, 경찰관계자는 “광주 북구의 한 선별 진료소 진료 결과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며, 담배를 많이 핀 탓에 기침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